

힘센충청
대한민국의 힘

2026. 2.

충청남도 산업입지 제5차 수급계획 고시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28.

충 청 남 도 지 사

붙임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1부.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2026. 2.

충 청 남 도

1.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여 산업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
 -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과거와 같은 외형적 성장의 지속은 어려운 상황임
 - 글로벌 경기 둔화, 세계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
 - 이러한 전환기에 충남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저성장의 고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할 시점
- 충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및 경쟁력 약화
 -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정체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재편이 요구됨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기업입지 선택 다양화로 충남의 기업 유치 여건 변화
 -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간 산업입지 경쟁 심화, 기업의 입지 선택 기준 다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수도권 이전기업 중심의 유치 전략은 한계에 직면
 - 충남의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실적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입지 공급보다는 산업생태계, 정주여건, 혁신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요구됨
- 기존 산업입지 정책은 공급 중심 구조로 인한 산업 연계성 부족
 - 그동안의 산업입지 정책은 물량 공급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 산업 전략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단기간 내 과도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미분양 문제가 발생
 - 또한 지역의 산업 특성과 무관한 업종 유치로 산업집적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발전에도 한계를 보임

- 개별입지 난개발 지속으로 환경·사회적 문제 심화
 - 개별입지 공장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계획입지 분양성 저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및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누적
 - 체계적인 계획입지 유도과 산업입지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
- 미래 신산업 대응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요구

2) 계획의 목적

-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한 산업 육성,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정책 수립,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입지 공급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산업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재정립
 -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운영되어 왔으며,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이후 산업구조 변화, 국토·산업 정책 기조 전환, 기업입지 수요 변화 등 여건이 크게 변화함
 - 특히 충남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입지의 기능 재정립이 요구됨
- 충남 중장기 경제·산업 비전 실현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마련
 - 충남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산업입지 발전전략 수립이 필수
 - 따라서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충남의 산업·경제 비전과 연계하여 산업입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 수요 기반 중심의 산업입지 수급체계 전환
 -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가 아닌, 산업별 수요 특성, 산업생태계 형성 가능성을 고려한 수요 기반의 산업입지 수급체제로 전환

- 반도체, 미래 친환경·자율차, 첨단소재, 그린·에너지 산업, 바이오 헬스 등 충남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입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조성
 - 개별입지 중심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를 통해 환경 부담 완화, 기반시설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탄소중립, 친환경·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지향적 산업입지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균형있는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권역별 산업 여건, 산업집적 현황, 인프라 및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남형 산업입지 발전 방향을 설정
 - 이를 통해 산업입지 수급의 합리성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충남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
- 이처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수요 예측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된 산업입지 공급, 계획입지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도내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수급계획 : 2026~2035년
 - ※ 2030년 수정계획 수립
 - 중장기 발전계획 : 2026~2035년
 - 기준연도 : 2025년(자료 활용 기준연도)
- 내용적 범위
 - 산업입지 여건 및 수요 분석
 - 산업입지 수급 전망 및 공급 계획
 - 산업정책과 연계한 산업입지 공간 배치 방향
 -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관리 및 질적 개선 방안

2. 충청남도 산업입지 비전 및 정책방향

<충남 산업입지 비전 및 목표>



1) 산업입지 정책목표

① 산업입지 확대 및 기업 유치를 통한 균형 있는 생태계 완성

[Balanced industrial location]

-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계획입지를 확대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충남 산업단지의 생태계를 균형 있게 발전

②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및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지원 기반 구축

[Advanced industrial location]

-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제조혁신이 가능한 첨단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

③ 그린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미래 산업단지 대전환

[Eco-friendly industrial location]

-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충청남도가 환경과 조화로운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2)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전략

① 균형발전 산업입지 계획 수립 및 관리

- 시·군별 균형 있는 산업입지 계획 수립
 -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입지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이를 통해 지역 간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중·장기적 산업입지 관리 체계 구축
 - 충남 내 산업단지의 입지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도모

② 산업집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산업 집적화 기반 구축
 - 충청남도 내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정 산업 분야의 집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이를 통해 산업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첨단기술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산업 환경 조성
- 기업 유치 및 지원 체계 마련
 -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외 기업을 충남 산업단지로 유도
 -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내 우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③ 산업단지 디지털·제조 혁신 지원

-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제조 혁신 지원
 -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나 같은 디지털 및 첨단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을 도모
 -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생태계로 발전시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산업단지 내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산업 간의 상호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상생 협업 생태계 형성

④ 노후 산단 편의·기반 시설 확충

○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산업단지 내 편의 시설(주차장, 가로등, 보행로, 식당 및 카페테리아, 상업시설, 물류 및 서비스 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 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 노후된 도로망, 전력망, 공업용수도, 통신시설 등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기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
- 이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

⑤ 탄소중립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인프라 도입

- 산업단지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
- 이는 장기적으로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가 환경 규제를 준수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 친환경 공정 기술 지원

- 각 기업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 공정 기술 지원을 강화
- 이를 통해 산업단지가 환경과 조화된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친환경 제품 생산을 촉진

⑥ 근로자 복지 및 안전 작업 환경 개선

○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헬스장 및 체육시설, 휴게 공간 및 공원, 샤워실 및 탈의실, 의료 및 건강 관리시설, 문화·교육센터, 기숙사 등 복지시설을 확충
-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인재 유입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제고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작업장의 안전 설비를 현대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작업 환경 개선은 근로자 사고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3. 권역별 산업입지 특화 방안

- 충남은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에서 산업발전권역을 북부스마트산업권, 충남 혁신도시권, 해양신산업권, K-바이오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으로 구분

〈5대 산업발전권역〉



Ⅰ 북부스마트산업권(천안·아산·서산·당진)

- 북부스마트산업권은 ① 첨단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 산업, ② 전동화·차량용 반도체 융합 모빌리티 부품 산업 ③ 고기능 화학소재 및 에너지 산업으로 특화
- 향후 조성될 ‘천안국가산업단지’는 이러한 핵심 산업군의 집적과 연계를 통해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고도화

〈북부스마트산업권 산업특성화 방향〉

특화 방향
① 첨단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 산업 특화 ▶ 액정 표시장치 + 반도체(메모리 IC)를 융합하여 Micr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AI·XR·메타버스용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 자동차용 HUD, 스마트 디바이스 등 응용 확장,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차량용 반도체) 전환 확대 → 차세대 ICT·휴먼인터페이스 산업 클러스터 구축 ② 전동화·차량용 반도체 융합 모빌리티 부품 산업 특화 ▶ 자동차용 부품 및 동력전달장치 + 반도체 + 축전지 산업 융합하여 전기차(EV)·수소차 파워트레인(전동화) 및 부품 생산 허브 육성, 차량용 전력반도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중심 클러스터 조성, 자율주행차 센서 및 인포테인먼트용 디스플레이·반도체 연계 산업화, 드론,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형 교통수단 부품 연계 확대 → 스마트·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③ 고기능 화학소재 및 에너지 산업 육성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반으로 차세대 이차전지(고체전지, 리튬황 등) 연구·양산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화학 소재(바이오플라스틱, 탄소포집소재 등)로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 촉진 → 탄소 저감형 화학소재·전력소재 클러스터 구축

② 해양신산업권(보령·서천·태안)

- 해양신산업권은 ① 친환경 구조소재 기반 모빌리티 부품 산업, ② 디지털 헬스 및 정밀 의료기기 산업, ③ 지속가능 식품·포장 연계 산업으로 특화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부합하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적되는 산업거점으로 고도화

〈해양신산업권 산업특성화 방향〉

특화 방향
① 친환경 구조소재 기반 모빌리티 부품 산업 특화 ▶ 자동차 엔진/신품 부품 제조업은 전기차·자율주행 부품으로 전환하고 강관 제조업과 연계하여 수소차 연료 배관, 구조 프레임 소재, EV용 새시 부품 생산 확대, 친환경 선박, 스마트 해양장비 산업육성 → 자동차 + 금속소재 융합 기반의 차세대 차량부품 산업클러스터 구축 ② 디지털 헬스 및 정밀 의료기기 산업 육성 ▶ 의료기기 제조업은 고령사회 대응 정형외과용, 재활·헬스케어 장비 생산 확대 → 정밀제조 기반의 의료기기·바이오융합 산업벨트 구축 ③ 지속가능 식품·포장 연계 산업 육성 ▶ 가공 및 저장처리업 + 포장용 유리용기 연계하여 HMR(가정간편식), 기능성 수산가공품 등 고부가 식품 개발, 스마트 포장기술(센서, 보존성 향상) 및 리사이클 유리용기 산업 육성 ▶ 원지 제조업은 친환경 종이포장재, 인쇄패키지 등으로 전환, 식품·화장품 포장 시장과의 연계 산업화 가능 → 식품가공 +소비재 산업특화

③ 충남혁신도시권(홍성·예산)

- 충남혁신도시권은 ① 전장 및 지능형 센서 모빌리티 부품 산업, ② 에너지·전력기기 산업, ③ 고기능성 소재 산업으로 특화
- 향후 조성될 ‘**홍성국가산업단지**’는 첨단 제조기술과 에너지 산업이 집적된 산업거점으로 고도화

〈충남혁신도시권 산업특성화 방향〉

특화 방향
① 전장 및 지능형 센서 모빌리티 부품 산업 특화 ▶ 자동차 차체용 부품 + 전자부품 제조업 연계하여 전기차용 경량화 차체 부품 개발, 차량용 커넥터, 전장회로, 제어 모듈 등 전자-기계 융합형 제품군 특화 → 스마트 모빌리티 부품·전자 통합 제조 클러스터 구축 ② 에너지·전력기기 산업 특화 ▶ 변압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컨버터) 분야로 확장, 전자부품과 연계하여 ESS, EV 충전 인프라용 전력장비 모듈화 추진 → 친환경 전력기기 + 고절연 소재 융합 클러스터 구축 ③ 고기능성 소재 산업 육성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은 디스플레이·배터리·의료기기용 고기능성 필름 개발로 첨단소재화, 생분해성 필름, 고강도 포장필름 등 ESG 친화 산업 전환 ▶ 위생용·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은 절연용 세라믹, 산업 설비용 내화 도자기 등 고기술 도자기 산업, 의료기기·에너지 산업과의 부품 융합 가능 → 정밀 기능성 소재 + 친환경 전환 소재 산업 기반 확대

④ 국방웰빙산업권(논산·계룡·금산)

- 국방웰빙산업권은 ① 모빌리티·에너지 산업, ② 지속가능 식품 및 농축산 순환 산업, ③ 친환경 포장·소재 산업으로 특화
- ‘**논산국방산업단지**’는 국방중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방 모빌리티, 전투식량, 위생·의무·포장 시스템 등 국방 수요에 대응하는 특화산업이 집적된 융복합 방위산업 거점으로 고도화

〈국방웰빙산업권 산업특성화 방향〉

특화 방향
① 모빌리티·에너지 산업 특화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을 연계해 전기차용 저소음·고효율 타이어, ESS 및 EV용 축전지 생산 거점화, 친환경 원료 기반 타이어, 탄소 절감형 배터리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부품 산업 특화 → 전기차 + ESS 기반 그린 모빌리티 부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② 지속가능 식품 및 농축산 순환 산업 육성 ▶ 두부 및 유사식품 + 식품 제조업은 고령친화식, 웰빙 건강식, 맞춤형 영양식 등 미래 식단 대응 산업 육성 → 비건·웰빙식 트렌드 대응 기능성 식품 클러스터 구축 ▶ 배합 사료 제조업은 항생제 대체 기능성 사료 개발로 축산 바이오산업과 연계, 복합형 배합 사료 기술 고도화 추진 → 식물성 단백질 + 스마트 사료 기반 지속가능 식품체계 구축 ③ 포장·소재 산업의 고도화 및 친환경 전환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 소비재 포장재 시장 확대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는 고강도·경량화 건설자재, 재생 철강소재 산업과 연계, 친환경 창고용 구조소재로 확장 → 친환경 포장소재 + 스마트 인프라용 구조자재 산업 특화

⑤ K-바이오산업권(공주·부여·청양)

- K-바이오산업권은 ①디지털·정밀 전자 부품 산업, ②건강식품 및 생명과학 식품 산업, ③친환경 생활소재 및 정밀 위생 산업, ④바이오·제약 및 농업 융합 산업으로 특화
-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바이오 중심 국가산단으로 계획하여, 의약·헬스케어·기능성 식품·정밀부품·농업바이오가 융합된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로 고도화

〈K-바이오산업권 산업특성화 방향〉

특화 방향
① 디지털·정밀 전자 부품 산업 특화 ▶ 전자부품 + 화학소재(세제, 여과기) 연계하여 전기·전자기기용 고신뢰성 정밀 부품, 회로소재, 센서 부품 등으로 확장, 환경·위생 관리용 필터, 공정용 화학소재와의 융합 가능 → 정밀전자·청정화학 융합형 제조클러스터 구축 ② 건강식품 및 생명과학 식품 산업 특화 ▶ 인삼식품 + 반죽 제조업 연계하여 고기능성 건강식품, 프리미엄 HMR(가정간편식) 산업화, 면역강화, 항산화 등 건강 컨셉 식품의 수출 및 고령친화식 대응, 글로벌 K-헬스푸드 브랜드화 가능 → 기능성 식품·고부가 소비재 식품 산업 허브 구축 ③ 친환경 생활소재 및 정밀 위생 산업 육성 ▶ 세제 제조업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화학제품 제조업 연계로 친환경 세정제, 수처리 필터, 위생용 정밀 소재 개발, 정수설비, 의료·제약·반도체 공정용 필터 부품으로 확대 가능 → 그린케미칼·위생소재 융합 산업단지 조성 ④ 바이오·제약 및 농업 융합 산업 육성 ▶ 완완제 의약품 + 농업용 약제 제조업 연계하여 정밀의약 + 스마트농업용 생물농약, 비료 등 고부가 융합 가능, 농생명 바이오 산업과 제약·의료바이오 산업 간 플랫폼화 추진 → 바이오의약·농생명 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1) 이전(제4차) 계획 평가

〈제4차 수급계획 배분 및 개발 현황〉

구분	4차 배분량 (A)	산업단지 개발 현황 면적(B)			비고 (B/A)
		합계	지정면적	지정계획면적	
충청남도	20,130,000	19,745,404	12,778,404	6,967,000	98%
천안시	1,560,000	4,829,477	4,089,477	740,000	310%
공주시	1,070,000	706,683	706,683	-	66%
보령시	2,110,000	575,368	575,368	-	27%
아산시	2,480,000	5,539,395	3,114,395	2,425,000	223%
서산시	3,770,000	3,129,364	1,622,364	1,507,000	83%
논산시	660,000	891,810	618,810	273,000	135%
계룡시	130,000	-3,498	-3,498	-	-3%
당진시	5,250,000	-415,315	-415,315	-	-8%
금산군	370,000	-64,008	-94,008	30,000	-17%
부여군	210,000	295,103	295,103	-	141%
서천군	650,000	34,716	34,716	-	5%
청양군	230,000	611,576	611,576	-	266%
홍성군	730,000	430,274	-12,726	443,000	59%
예산군	870,000	3,134,492	1,585,492	1,549,000	360%
태안군	40,000	49,967	49,967	-	125%

○ 제4차 계획 개발현황

- 제4차 수급계획 배정 물량 면적 : 20,130천㎡(약 607만평)
- 개발수요면적* : 19,754천㎡(약 597만평), [2016년~2025년 간 약98% 물량 소화]

* 개발수요면적 : 산단개발완료면적 + 산단지정(개발중)면적 + 산단지정계획 반영면적
⇒ 전국 평균(63%) 대비 높은 소화율을 기록

2) 제5차 산업입지 계획

㉠ 추정 방법(계량모형 및 원단위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 추정법 활용)

- 계량모형은 지수평활 모형, 자기회귀모형, ARIMA모형 등을 활용
- 원단위 분석은 제조업 생산액 예측을 통한 원단위 적용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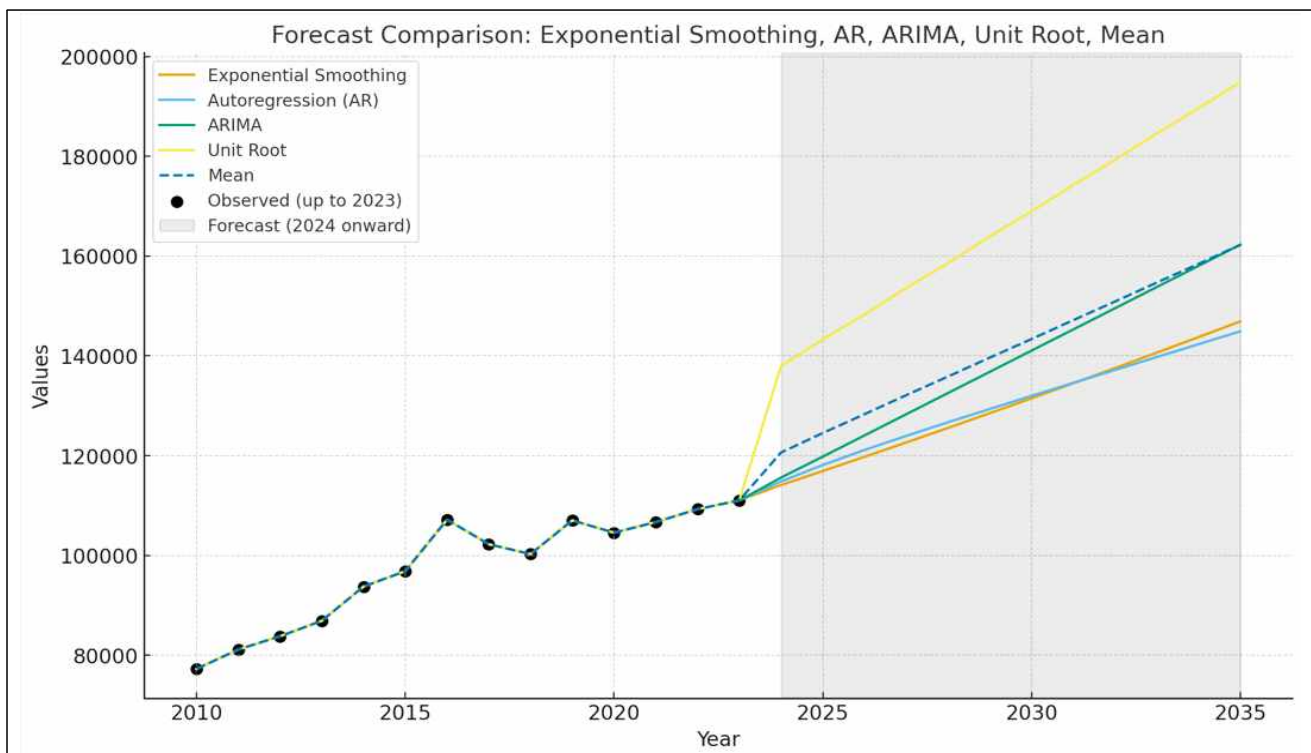
② 순수요 면적 추정결과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간 수요(안)〉

구분		제4차 수급계획 (2016~2025년)	제5차 수급계획 (2026~2035년)
전체 수요 (천㎡) : A	최소	(적용법) 지수평활 (산출값) 2,368천㎡	(적용법) 지수평활법 holt법(Sqrt함수) (산출값) 2,999천㎡
	최적(안)	(적용법) 원단위 (산출값) 3,060천㎡	(적용법) 최적모형 평균값 (산출값) 3,772천㎡
	최대	(적용법) 지수모형 (산출값) 4,797천㎡	(적용법) 원단위 (산출값) 5,160천㎡
계획입지 비율(%) 및 적용방법 : B	비율	65.8% 적용	70.4% = 60.4% + 10%p
	적용 방법	평균 계획입지 비율로 산정	2019~2024년간(5년간) 공장등록 증가면적 중 계획입지 순증가 비율로 산정
순수요 물량 (천㎡) : C=A*B	최소	1,558천㎡	1,886천㎡
	최적(안)	2,013천㎡	2,655천㎡
	최대	3,156천㎡	3,633천㎡

최종적으로 2026~2035년간 연평균 물량 2,415㎡ 배정(4차 대비 20% 증가)

〈모형별 충남 산업용지면적 예측치〉



- 충남은 제4차 수급계획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2024년부터 산업단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5차 수급계획에서 충분한 물량확보가 필요한 상황
- 제5차 수급계획에서는 연간 최소 1,886천㎡에서 최대 3,391천㎡로 분석되었으며 최적(안)으로는 모형별 평균값(Mean)인 2,655천㎡를 제시

③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결과

- 국토부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연간 2,415천㎡ 배정(4차 물량대비 최대 20% 증가분 반영)
-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물량 배분
 - 제5차 수급계획 배정 물량 면적 : 24,150천㎡(약 731만평)
 - 제4차 대비 20% 증[4,428천㎡(약 134만평)]
 - ⇒ 약 2만명의 신규고용창출, 연간 약1조1천억원 생산 기반 조성 기대
- ※ 충청남도의 경제적 역량을 한층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변화 현황〉

제3차	제4차		제5차	
총수요물량	총수요물량	전차 대비 증감	총수요물량	전차 대비 증감
16,573천㎡	20,130천㎡	증) 3,557천㎡	24,150천㎡	증) 4,428천㎡

④ 아쉬운 점

- 우리 도는 최적(안)으로 26,650천㎡(약 806만평)의 수요물량을 제시하였으나, 국토부 상향 한도의 제한(전차 대비 최대 20%)으로 개발수요를 충분히 지원 못 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음
- 이에 따라, 5년 후 여건 변화(경제자유구역 및 국가산업단지 등) 및 추가 수요(민간 등) 확대에 대비한 변경 계획 사전 마련(2028년부터) 필요

3) 권역 및 시군 물량 배분

① 배분의 기본원칙

- 시·군별 물량배분은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공장면적, 입주업체 수, 고용인원, 누계생산 실적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먼저 각 기준별로 시·군의 산업 규모와 활동 수준을 반영해 배분 물량을 산출하고, 이후 이를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하여 최종 물량을 결정
- 이러한 방식은 산업 인프라 규모, 기업 집적도, 고용 기여도, 실제 생산 성과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특정 지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 간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량 배분 방법임

〈시군별 물량 배분 방법〉

(단위: 천㎡)

구분	공장면적 기준(A)	입주업체 기준(B)	고용인원 기준(C)	누계생산 기준(D)	평균[E=(A+B+C+D)/4]
충청남도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A(\text{공장면적}) = 24,150 \times \frac{\text{〇〇시·군 공장면적}}{\text{충청남도 공장면적}}$$

$$B(\text{입주업체}) = 24,150 \times \frac{\text{〇〇시·군 입주업체 수}}{\text{충청남도 입주업체 수}}$$

$$C(\text{고용인원}) = 24,150 \times \frac{\text{〇〇시·군 고용인원}}{\text{충청남도 고용인원}}$$

$$D(\text{누계생산}) = 24,150 \times \frac{\text{〇〇시·군 누계생산액}}{\text{충청남도 누계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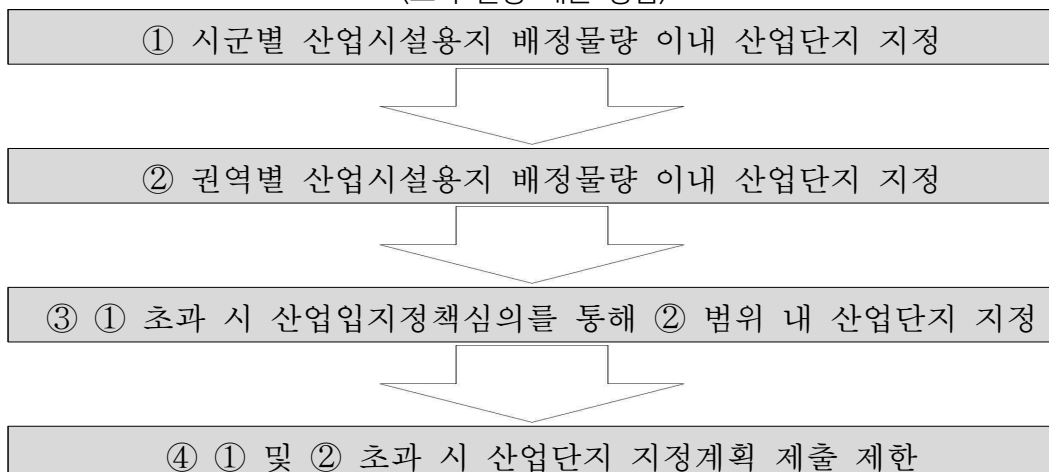
$$E = \frac{A + B + C + D}{4}$$

24,150천㎡를 각 항목별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도출된 평균값을 최종 배분 기준으로 활용함

② 시군별 초과 물량에 대한 수급 관리 추진 방안

- 시·군별 산업입지 배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동일 권역 내 여유 물량을 우선 활용하여 추가 배정이 가능

〈초과 물량 배분 방법〉



③ 시군별 물량 배분 결과

〈시군별 물량 배분〉

(단위: 천㎡)

구분	공장면적 기준 (A)	입주업체 기준 (B)	고용인원 기준 (C)	누계생산 기준 (D)	평균 [E=(A+B+C+D)/4]
충청남도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천안시	3,120	6,709	6,682	4,458	5,242
공주시	1,161	1,642	1,105	535	1,111
보령시	2,001	1,191	611	272	1,019
아산시	3,452	2,655	6,764	6,679	4,887
서산시	3,920	1,546	2,768	6,884	3,780
논산시	810	851	677	231	642
계룡시	87	348	205	136	194
당진시	5,810	4,201	2,707	3,551	4,067
금산군	376	614	235	102	332
부여군	296	362	90	17	191
서천군	696	925	378	110	527
청양군	403	429	301	350	371
홍성군	664	1,146	476	203	622
예산군	1,304	1,324	1,115	617	1,090
태안군	51	207	36	5	75

자료: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25.2분기) 비중 활용

-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라 총 24,150천㎡(약 731만 평)의 산업용지를 도내 15개 시·군에 배분
-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지역은 천안시로 5,242천㎡(21.7%)이며, 이어 아산시 4,887천㎡(20.2%), 당진시 4,067천㎡(16.8%), 서산시 3,780천㎡(15.7%) 순
 - 산업 수요와 기존 산업기반이 집중된 북부권 4개 시의 배정 물량은 총 17,976천㎡로 전체의 약 74.4%를 차지
- 공주시 1,111천㎡(4.6%), 예산군 1,090천㎡(4.5%), 보령시 1,019천㎡(4.2%)가 각각 1,000천㎡ 내외의 물량이 배정되었고 논산시(642천㎡), 홍성군(622천㎡), 서천군(527천㎡)은 500~600천㎡ 수준으로 배분
- 청양군 371천㎡(1.5%), 금산군 332천㎡(1.4%), 계룡시 194천㎡(0.8%), 부여군 191천㎡(0.8%), 태안군 75천㎡(0.3%)은 소규모 수준으로 배분
- 이번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물량 배분은 산업 수요가 높은 북부 산업벨트(천안·아산·당진·서산)에 중점 배분하고, 기타 시·군에는 지역 여건과 입지 수요를 고려한 물량을 배정

4 권역별 물량 배분 결과

〈권역별 물량 배분〉

(단위: 천㎡)

구분	공장면적 기준 (A)	입주업체 기준 (B)	고용인원 기준 (C)	누계생산 기준 (D)	평균 [E=(A+B+C+D)/4]
충청남도	24,150	24,150	24,150	24,150	24,150
북부권	16,302	15,111	18,921	21,573	17,977
서해안권	2,748	2,323	1,024	388	1,621
내륙권	3,618	4,889	3,203	1,840	3,388
금강권	1,482	1,827	1,002	349	1,165

주: 북부(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태안, 보령, 서천), 내륙(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강(금산, 논산, 부여)

-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총 24,150천㎡를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 산업 수요와 기존 산업집적도를 반영한 권역 간 차별화 배분 구조가 나타남
- 먼저 북부권은 17,977천㎡로 전체의 약 74.4%를 차지
 - 천안·아산·당진·서산은 도내 핵심 산업벨트가 위치한 지역으로, 기존 산업단지 밀집도와 기업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
- 내륙권은 3,388천㎡로 약 14.0% 수준으로 북부권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 배정
 - 기존 산업기반을 보완하고,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중 구조를 완화하여 권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
- 서해안권은 1,621천㎡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
 - 항만·관광·해양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 수요를 반영하되, 대규모 확장 보다는 점진적 공급 기조를 유지
- 금강권은 1,165천㎡로 약 4.8% 수준으로 가장 적은 비중
 - 산업 수요 규모와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략적·선별적 공급 성격
- 이번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북부 산업집적지 중심의 집중 공급(약 74%)과 기타 권역의 보완적·균형적 배분(약 26%)이라는 이원적 구조
- 이는 성장 거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권역 간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

